

근로정신대 피해 생존자 “‘제3자 변제’ 거부”

양금덕·김성주·이춘식씨 등 3명
피해자지원재단 내용증명 전달
민법상 ‘당사자 의사 없이’ 불가
대리인 “채권 합부로 소멸 안돼”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방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일본제철 소송의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도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 측은 13일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수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거부의사를 담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내용증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법 제469조 제1항에는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대리인은 내용증명에서 “의뢰인이 확정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합부로 변제해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10대 초·중반인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1944년 5월 말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1945년 10월말 귀국할 때까지 17개월여 동안 임금 한 푼 없이 굶주림 속에 강제노동 피해를 입었다.

1944년 12월 7일 발생한 도난카이 지진에 공장 건물이 붕괴되는 바람에 함께 매몰돼 발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일본 소송에 참여한 일부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쓰비시가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사이 원고 3명(김중곤, 이동련, 박해욱)은 사망, 남은 생존자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2명 뿐이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도 이날 소송 대리인을 통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측에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지연이자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단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기업(국내 16개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배상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에게 배상한다는 것이 골자다. 배상 대상인 피해자에게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이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40억여 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양금덕 할머니

는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금덕 할머니의 법률 대리인인 김정희 변호사도 “대법원에서 미쓰비시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행정부가 ‘제3자 변제’를 내놓았다”며 “이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왜곡하는 3권 분립에도 위배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을 받을 것이라는 질문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런 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민간위탁 사업비 5억원 횡령
광주관광협회 직원 검찰 송치

광주관광협회 관계자가 민간위탁 사업비를 협회 운영비 등으로 불법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로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광주관광협회 소속 A씨를 송치(기소 의견)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관광협회는 관광안내소 운영 사업비, 포럼 개최사업, 마케팅 사업비 등 민간위탁 사업비를 유용·횡령한 사실이 최근 광주시 감사를 통해 적발돼 경찰 고발됐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협회가 9개의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위탁사업 예산을 원래 사업 목적과 다른 협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총 횡령액은 약 5억원으로, 협회 측이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운영난에 시달리자 다른 위탁 사업 자금을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 측은 사업비를 개인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거나 가공의 거래를 꾸며 사업비를 사용했으나, 횡령액은 모두 변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보조금과 달리 민간위탁 사업비는 용도가 특정하게 제한돼 있음에도 협회 운영비로 불법 사용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환준 기자

동구 반려동물업체 분양 사기 의혹
계약금 받고 인계 거부…경찰 수사

광주 동구의 한 반려동물 분양 업체가 1억원 대 계약금을 챙긴 뒤 추가금액을 요구하면서 인계를 거부하고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동구에서 반려동물 분양업체를 운영하는 40대 초반 A씨가 계약금만 챙긴 뒤 반려견 분양 절차를 미루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최근 접수됐다.

해외에서 반려동물 분양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해 11월 중순 A씨로부터 티킵 말티푸 등 반려견 23마리를 분양받는 계약을 진행, 지난달까지 인계받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한 마리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계약금 1억 원을 먼저 받았음에도 환율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면서 인계를 거부하고 있다. 계약한 반려견조차 보여주지 않는데다 이달부터는 강아지 관리비도 요구하고 있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A씨가 명품 반려견의 혈통을 속인 채 분양했다는 고소장 2건이 추가로 접수돼,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김혜린 기자

5·18 부상자회·공로자회, 행사위 탈퇴…전야제 불참

지역 사회 반발을 무릅쓰고 특전사동지회 초청 행사를 강행한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5·18 전야제 등 민간 주도 기념행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두 단체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5·18 민중항

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행사위)의사업내용 중에는 광주 문제 해결 5대 원칙(진상규명·책임자 처벌·명예회복·국가배상·정신 계승)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과 실천 내용이 없다”며 “행사위 탈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행사위는 정부의 5·18 기념식과 별개로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전야제 및 기념행사를 기획·실행하는 민간 조직이다.

행사위가 두 단체를 제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두 단체는 스스로 탈퇴하는 모

양재를 취했다.

이들은 “5·18 단체나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 목적의 단체를 조직하거나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5·18 유공자법을 근거로 행사위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사위에 지급되는) 10억원이 넘는 귀중한 광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반납해서 불우이웃 돕기나 물 부족 해결 등에 사용할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민찬기 기자

여보야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A.I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 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าวน์โหลด하기 Google Play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

1 다운로드 ONE store